

# 풍성한 수확 자랑하는 단행본 출판사들

## 연간 50종 이상 10여곳... 비상업성 원고 몰려 학술서 두각

출판물은 출판사의 얼굴이다. 출판인은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책들을 통해 한 사회의 정신문화에 깊숙이 참여한다. 특히 단행본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독서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출판분야이다. 단행본을 '출판의 꽃'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 단행본출판사 중 올 한해동안 가장 많은 책을 펴낸 곳은 어디일까?

물론 출판사의 위상을 발행종수로써 가늠하는 행위는 비문화적이다. 여러 함정들을 무시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올해에 1백종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한 출판사는 고려원, 동아출판사, 민음사 정도일 것으로 알려진다. 참고서, 만화, 아동물, 전문기술서적 등의 분야를 포함시키다면 50군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94 출판연간」에 의하면, 지난해에 101종 이상의 실적을 보인 출판사는 49곳이었다.

### 고려원, 동아출판사, 민음사 1백종 이상

고려원은 고려원(주), 고려원미디어, 국제사회문화연구소 등 3개 계열사를 통틀어 올해 연말 기준으로 2백종에 육박한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인간이 관심을 갖는 전 영역」에 걸친 종합출판을 지향한 덕분에 해마다 30%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규모와 발행종수가 서로의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도 볼 수 있다.

몇년 전까지 3백종 안팎의 단행본을 펴냈던 동아출판사는, 올해는 아동물 40여종을 포함해 150여종의 신간을 냈다. 출판문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품종을 소수정예화하지는 복안이다. 참고서류를 포함하면 '출판왕국' 동아출판사의 물량과 견줄 만한 출판사는 없다. 해마다 1천여종을 상회하는 위용을 자랑한다. 단행본 영업부 대리 박병영씨는 "종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단행본 종수가 더 적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에 올해에 큰 호응을 얻은 국민학생 대상의 '동아창작동화' 시리즈와 유아 대상의 '알콩달콩 교육동화' 시리즈에 좀더 신경을 쓸 작정이다.

창립 이후 29년간 1천4백종을 출간한 민음사는 올해에 110종 130권을 보냈다. 민음사의 직원들은, 민음사야말로 발행종수에 걸맞은 문화적 전파력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양적인 축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책'이 많음을 자랑한다. 지형생존율이 70

전문도서출판사들은 올 한해동안

예년에 비해 많은 종수를 출간했다.

출판산업주의에 의해 도외시된

전문학술서 원고들이 일부 출판사에

쇄도했다. 전통의 단행본 명문들은

50종 이상의 발행종수를 기록했으며

힘껏 많은 책을 펴낼 예정이다.

인문적 교양의 빈사상태를 걱정하는

'출판쟁이'들은 적자 걱정도 않고

욕심껏 신간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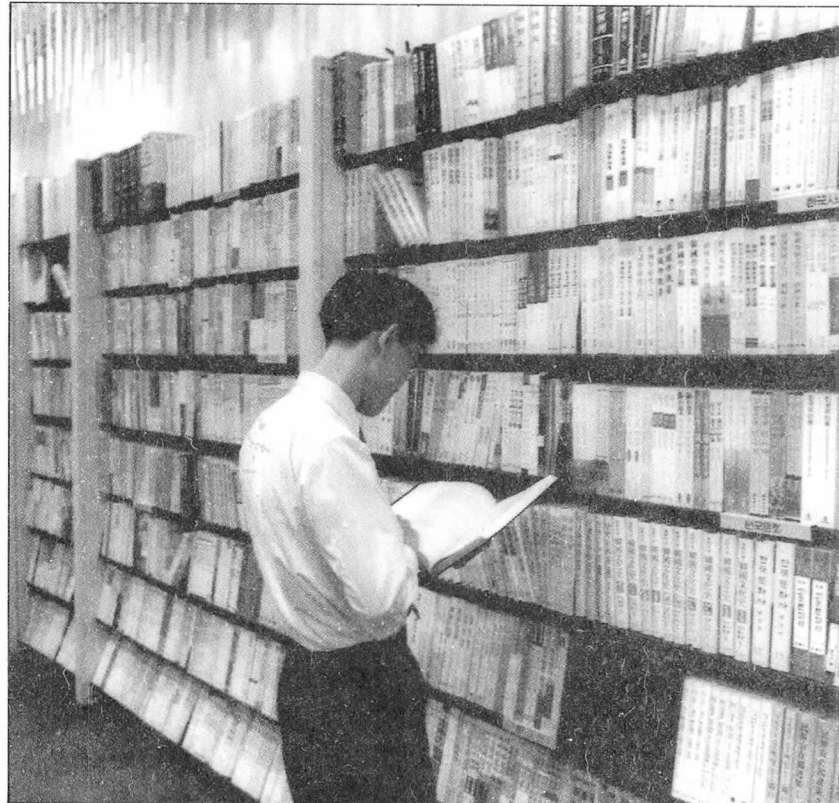
%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이영준 주간은 "앞으로 발행종수가 부쩍 늘 것 같다"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맹렬히 펴내는 일 자체가 일종의 문화성을 지닌다"는 주장이다.

90년대 들어 일부 학술전문출판사는 발행종수에 관한 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학술출판시장이 확대된 탓은 전혀 아니다. 80년대말부터 기승을 부린 출판산업주의의 덕분이다. "5백부만 팔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학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책이라면 기필코 내겠다"는 소신을 지닌 출판업자들이 길 잃은 원고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 학술서는 몇군데 출판사에 집중돼

올해 80여종을 출간한 한울의 김중수 사장은 "학술서를 내주는 출판사가 줄어들면서 발행종수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더 늘 것 같다"고 예상한다. 역시 80여종을 출간했고, 특히 마스크 관련분야의 학술서를 독점하다시피하는 나남의 조상호 사장 또한 "최근 5년간 출판종수가 늘고 있다"고 전한다. 70여종을 낸 집문당의 우진주 사장은 "까딱하다간 적자가 날 지경이다. 그런데도 그런 책만 낸다"며 "출판에 입문했을 때의 초발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학술서 전문출판사들이 '올머거 자먹기' 식으로 원고를 소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변화를 출판물로서 응전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출판쟁이'로서의 집요한 애집때 문이기도 하다. "좋은 원고가 미치지 못 많다. 내고 싶은 책이 미치게 많다"고 조상호 사장은 영탄한다. 문화의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는 출판인들이 있는 한, 베르협약이 발효되어도 학



단행본의 숲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출판인들은 말한다.

술출판물을 다종 펴내는 출판사는 건재할 전망이다. 민음사의 한 관계자는 "2천년대에 들어서면 한해에 5백종 이상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한해 평균 70여종을 출간했던 한길사는 올해 40여종의 신간을 냈다. 국내 최초·최대의 민찬 「한국사」(전27권)가 그 문화사적 의의는 지중하지만, 단 1종으로 처리되는 통계의 장난이 작용한 때문이다.

학술출판물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을 취하다보니 발행종수가 많아졌으리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책값으로는 승산이 없는 전략인 것으로 평가된다. 책의 정가는 '출판사가 굴러갈 수 있는 비용÷발행부수'의 값으로 매겨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아동물, 종수 늘고도 마이너스 성장

아동물 출판사들은 발행종수에 관한 한 올 농사는 대풍년이다. '아동물의 메이저 출판사'의 하나인 지경사는 올해 1백종을 넘을 뻔했다. 유아용 도서를 대폭 늘린 탓이다. 그러나 실속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17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김병준 사장은 한숨짓는다.

"도서대여점 때문이다. 국민학생용 책이 죽었다. 여름방학 때조차 안 팔렸다. 지금까지

국민학생용과 유아용 도서를 7:3의 비율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유아용 도서에만 전력을 작정이다. 국민학생용 도서의 경우, 새 원고를 받고 있지 않다. 광고요? 도서대여점에겐 좋은 일 시킬 이유 없다."

도서대여점이 국내 유수의 아동물 전문출판사에게는 비극의 곡선을 그어주었다면, 신생출판사나 소규모출판사에게는 희극의 곡선을 선사했다. 도서대여점이라는 새로운 '소매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생김 M출판사는 도서대여점 전담 영업사원을 두었다. 기존 아동물 유통망에 끼어들 재간이 없었던 설움을 왜곡된 형태로 해소하는 형국이다. 만화가 대본소를 통해 유통되듯, 아동물을 도서대여점을 통해 유통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한 종마다 3, 4천부씩 고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으니만큼, 발행종수를 늘리지 않을 이치가 없는 것이다.

한편, 문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견고한 성체를 구축하고 있는 문학과지성사, 창작과 비평사 등에서도 꾸준한 발행종수를 유지했다. 각각 60, 50여종 정도씩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학과지성사의 최장석 영업사원은 "발행종수가 축적되면서 매출액 역시 약소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영사도

60여종을 출간했다.

대학출판부 중에서는 건국대출판부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96년 개교 50주년, 내년 출판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굵직한 기획물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서울대”라고 대학출판부협회 주홍균씨(사무국장)는 말한다. 올해 60여종을 출간했으며, 「단군」은 북한의 단군묘 조성 등의 사건과 맞물리면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 외국 유명출판사는 1천종 넘어

다중출판은 한 출판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잠재역량이나 독서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의 고단사나 영국의 펜귄출판사 등 한 해에 1천종 이상을 발행하는 출판사는 그 나라의 자존심인 것이다. 두툽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서로만 1년에 5백종 이상을 찍는 루트렛지(Routledge) 출판사는 영국이 늙은 신사의 나라가 아님을 증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백종 정도를 출간해야 출판문화의 뜨거운 상징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까치의 박종만 사장은 “한 해에 1백종 이상 못내는 출판사는 출판사도 아니다”고 단언한다. 까치는 올해 20종 미만의 신간을 냈다. 박사장은 “까치도 출판사 측에 끼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 출판문화의 역량과 성숙도를 대변할 만한 출판사는 손가락 수보다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발행종수의 문화적 의미를 따지는 일은 대다수 출판업자들에게는 생존문제 이후의 이야기다. 신생출판사의 관계자들은 10종 출간이 지상목표가 된다. 그 10종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출판사들이나, 전체 출판사의 7할을 차지하는 무실적출판사에게 다중출판은 선망의 대상일 따름이다.

단행본 메이저 출판사는 그들 나름의 긍지와 피로움을 나눠 갖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반면, 바람 잘 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원 편집장 박남현씨는 다중출판의 이득을 두가지로 설명한다. “매해마다 밀리언셀러급의 베스트셀러가 산출된다. 출판사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영업 활동이 수월하다”는 것.

#### “최근에 창고를 하나 더 얻었다”

다중출판의 피로움은 관리문제로부터 시작

#### 실적별 출판사 수 추이

연도	1972		1982		1993	
	실적 수	비율	실적 수	비율	실적 수	비율
무실적	1201	32.5	338	15.6	5708	68.1
1~5	343	19.3	945	43.5	1627	19.4
6~15	160	9.0	477	22.0	624	7.5
16~50	64	3.5	197	13.7	320	3.8
51~100	-	-	67	3.1	52	0.6
101 이상	10	0.6	46	2.1	49	0.6
총수	1778		2170		8380	

(「94 출판연감」, 단위: 권)

한다. 한울은 “최근에 창고를 하나 더 얻었다.” 동아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개발비보다 물류비(유통비)가 훨씬 많이 소요된다면 다중출판은 굴레일 뿐”이라고 말한다. 출판사 직원들도 곤욕을 치르기 일쑤이다. 편집장은 책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책의 특징을 극명하게 표현해줄 광고문안을 찾아야 한다. 영업부 직원도 마찬가지다. 일주일간 지방출판을 가면, 도시를 옮겨 다니는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신간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어 곤혹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출판사별 발행종수를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지난 91년을 마지막으로 출판협회가 집계하는 ‘발행종수로 본 출판사 규모 순위’ 통계는 끝났다. 출판계 안팎의 호사가들에게 작은 화젯거리를 만들어주려던 협회의 소박한 정성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상위 10개사 중에서 8개사가 만화출판사였다.

예상대로 동아출판사, 교학사, 계몽사, 지학사, 웅진출판(주), 금성사 등 매머드급 출판사들이 상위에 랭크됐지만, 단행본 출판사 중에서는 창작과비평사만이 20위에 턱걸이했다. 그나마 91년에 아동문고 46종을 판형을 바꾸어 재출간한 덕분에 137종으로 불어난 것이었다. 민음사가 96종으로 33위, 삼성출판사가 95종 37위, 고려원(주) 89종 43위, 한길사가 65종 63위, 나남출판사 61종 66위를 기록했었다.

그 출판사들은 힘닿는 대로 많은 책을 찍어 낼 태세를 보인다. 상업출판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활자매체를 멀리하고, 빠른협약의 발효가 코앞에 닥친 3년(三難) 속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당하는 좋은 원고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김중식 기자

# 나무들

조이스 킬머 지음 / 김귀화 옮김 / 이해인 수녀 해설



## 이해인 수녀님의 애송시... 나무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런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의 단물 흐르는 젓가슴에  
끓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나무

은종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앞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칼에다  
방울새의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느님뿐

### 한솔미디어



### 한솔기획

나태한 정신을 서릿발처럼 일깨우는,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의 진주.  
여러분의 원고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리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스: 722-3866